



# 어린이 책시장에 뛰어든 '성인' 출판사들

## 문학과지성사 · 문학동네 · 돌베개 · 김영사 등 각축

**아동출판의 판도가 달라진다. 80년대 문학의 뜨거운 상징이었던 문학과지성사가 '문지어린이(가칭)', 90년대 젊은 문학을 이끌었던 문학동네가 '문학동네어린이'로 아동출판을 시작한다. 참신한 기획의 청소년물로 관심을 모았던 김영사와 정통 사회과학물 출판에서 종합출판으로 성공적으로 방향을 바꾼 돌베개도 '작은집(가칭)'을 출범시킨다.**

학습참고서 시장을 뺀 순수 아동출판시장은 90년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91·92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폭이 컸고, 그후로는 1년에 발행되는 양이 4천여 종 정도로 안정됐다. 해마다 출판통계에서 가장 많은 종수를 기록하는 문학류와 대등한 수준인 만큼 많은 출판사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게 사실. 게다가 제대로 된 아동출판에 대한 출판계의 갈망도 컸다.

### 쌓아온 노하우 어린이출판에 접목

새로 아동출판에 뛰어드는 출판사들은 대개 '성인'출판에서 그 나름의 위상을 확보한 곳들이다. 어린이 교육에서 책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어린이출판에 접목하고 장기적으로 창작기획물에 투자하겠다는 굳은 계획은 같다. 하지만 연령·영역별로 조금씩 다른 성격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 미묘하다.

90년대의 걸출한 작가를 보유하고, '어른을 위한 동화'로 청소년까지 독자를 넓힌 문학동네(대표 강병선)는 '어린이 책에도 문학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5월 초에 '문학동네어린이'를 진수시킨다. 유아용 그림책과 초등학교 어린이책을 아우르되 문학적 향기가 짙은 책으로 1차분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 《빙산루리와 함께 북극에서 남극까지》, 《꼬마 부엉이 삼총사》 세권을 내놓는다.

이문재 주간은 "국내 창작물을 준비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쉽지만 외국창작물로 시작한다"며 국내 창작물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다.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뚜렷한 마케팅 계획을 갖고 있다. 다름아닌 '국제경쟁력'이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것. 어린이책에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자신한다. 또 젊은 문학가들이 모일 수 있는 '동네'를 마련했던 것처럼 어린이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동문학평론지 같이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역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 지원"도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도 문학적 높은 책을 초등학교생용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고학년용을 대상으로 했다가 점차 연령을 저학년으로 낮춰갈 생각이다. 어린이책에 관심을 두어온 전문가를 기획위원으로 두고 세달에 한번씩 기획회의를 연다. 불어권·독일어권·영미권으로 나뉘어 담당 기획위원을 두는 등 무엇보다 전문성을 살렸다.

오는 11월에 5권을 먼저 발간할 예정인데, 김주연 교수(숙명여대)가 번역하는 《독일어권 동시모음》, 아동문학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에드트 네스비트의 《보물 찾는 아이들》, 어린이 문학의 톨킨이랄 수 있는 어슐러 르킨의 《땅바다의 마법사》 등이 대기 중이다. 담당자 염현숙씨는 "문지 세대들이 학부모가 된 지금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한 때"라며 '문지책은 좋은 책'이라는 이미지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동화는 문학의 규범이다. 모든 문학적인 것은 동화적이어야 한다"는 노발리스의 명제에 충실하려는 두 출판사는 아동용 책뿐 아니라 아동문학을 지원해 줄 원론과 비평도 더불어 살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아동문학이론서 《용의 아이들》을 펴낸 바 있는 문학과지성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문학 비평서와 이론서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척박한 풍토를 풍요롭게 할 생각이다.

돌베개와 김영사는 청소년물을 간간이 펴냈지만 초등학교생과 유아용 책으로 아동출판

을 본격화한다. 이미 청소년 과학책으로 참신한 기획력을 인정받았던 김영사(대표 김영범)는 <앗,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시리즈로 초등학교생에게 다가갔다. 저학년용 그림책 시리즈는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책인 《청소대장 울기가족》을 첫권으로 준비중이다.

90년대 이후 출간된 현대 아동문학을 주로 출간할 예정인데, 역량이 성숙할 때까지는 번역물 위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어린이책 담당자 김희진씨는 "과학시리즈처럼 정보를 담으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며 역사와 스포츠시리즈를 국내 창작으로 곧 출간한다고 전한다. 5월 중 나올 책은 <스포츠 시리즈>로 《야구가 야단법석》, 《올림픽 바웃 올림픽》, 《월드컵은 원래 이래》 등이다.

### 상업적 접근보다 문화의 층위 개척에

돌베개(대표 한철희)는 회사사 형식의 '작은집(가칭)'이 어린이책 출판을 담당한다. 첫 결실은 유아물 《발달단계에 맞는 아기그림책》 시리즈로 《한살바기책》, 《두살바기책》, 《세살바기책》 세권을 5월 중에 펴낸다. 김혜형 편집부장은 "오래도록 칭찬받는 책을 만들겠다"는 모범답안을 품고 있다.

편집실무를 맡고 있는 문승현 실장은 "어린이책은 성인물과 달리 혼자 만드는 책이 아니"라며 제대로 만들기 위해 기획자·글작가·그림작가·내용을 감수할 전문가·어린이 교육전문가·총괄적인 아트디렉터 등 전문인의 힘을 모으겠다고 한다. 어린이 창작물의 수준이 아직 미흡하지만 수준 높아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출판시장은 연령별로 섬세한 기획



문학과지성사·문학동네 등 '성인' 출판사들이 어린이 출판시장에 새로 뛰어든다.

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이 일반적이다. 성인물처럼 대형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린이전문출판사들이 고군분투 끝에 일궈놓은 어린이출판시장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술거나라》, 《전통과학》 시리즈 등 창작기획물을 내놓았던 보림출판사의 박상용 주간은 성인출판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달라고 부탁한다. "가령 똑같은 내용의 전래동화를 그림만 바꾸지 말고 가사·시조 등을 응용하는 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어린이책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이니만큼 조금해하지 말라고 덧붙인다.

그림책 출판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재미마주의 이호백 대표 역시 어린이출판에 시장이나 산업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아동출판이, 고르게 발전한 어린이문화 가운데 한 층위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들려 있는 입맛을 좇아 사업적으로 접근해 걸만 바꾼다면 실패는 예비된 셈"이라고 못 박는다.

—이현주 기자